

대학편입생의 편입 이전 대학생활 특성 탐색

Exploring Transfer Students' University Life before Transferring

서재영, 최원석
한국교육개발원

Jae Young Seo(sjy406@kedi.re.kr), Won Seok Choi(wschoi@kedi.re.kr)

요약

본 연구에서는 한국교육개발원의 한국교육종단조사 2005 데이터를 사용하여 편입생들의 편입 이전의 대학생활이 일반학생과 어떻게 다른지를 탐색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대조집단은 편입하지 않는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대조집단 1과 관찰집단 유사한 특성을 가지는 학생을 1:1 매칭하여 표집한 대조집단 2로 나누었다. 대조집단 1의 7차년도 및 8차년도 대학생활과 비교하고, 대조집단 2의 7차년도 및 8차년도 대학생활과 비교하여 각 변수별로 총 4 종류의 비교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편입학생들은 이전의 대학에서 일반학생에 비해 성적이 우수하고, 수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수업 외의 항목에서 교수와도 활발히 교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편입학생들은 이전 대학에서 상대적으로 학교생활 만족도가 낮고, 학교에 대한 소속감이 낮았다. 또한 학생회, 축제와 같은 기타 교내 활동 참여도나 친구 및 선배와의 교류도 적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편입생들은 편입 이전의 학교에서 학점과 교수와의 교류 등 학교의 공식적인 활동에서는 일반학생들에 비해 뛰어났으나 학생들 간의 교류나 대학생으로서의 다양한 활동 등 학교생활의 정서적인 측면에서는 활동을 잘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활용하여 향후 편입생들의 학교 적응을 효율적으로 돕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중심어 : | 편입 | 편입학 | 편입생 | 대학생활 | KELS 2005 |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Korean Education Longitudinal Study 2005 7th-9th year data to analyze the university life of transfer students prior to their transferring by comparing them to that of non-transfer students. This study used two types of comparison groups: The first comparison group encompasses all who did not transfer and the second group was 1:1 matched sample of students who were enrolled in the same universities in the 7th year and were of the same gender. The 7th and 8th year experiences were compared, respectively. According to the result, transfer students in their previous universities compared to non-transfer students demonstrated higher grade point average, active class participation, and more interaction with faculty outside the class. On the other hand, these students demonstrated relatively lower satisfaction in university life, lower sense of belonging, and lower participation in student unions, campus events, and other student activities. They also tended to have less interaction with their colleagues. In other words, transfer students showed high competency and interests in academic activities like managing good grades and interacting with faculty but showed less interest in social activities such as interacting with peers and engaging in various campus activities. It is necessary to develop programs to help transfer students to adapt to school efficiently by utiliz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 keyword : | Transferring | Transfer Student | University Life | KELS 2005 |

I. 서론

편입학은 학생이 진학한 대학에서 다른 대학으로 학적을 이동하면서 1학년이 아닌 다른 학년으로 들어가는 제도를 의미한다. 1996년 교육부가 편입학 확대조치를 실시한 이후 편입학생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1]. 이후 수도권 대학으로의 편입 경쟁이 과열되는 문제점이 나타나면서 대학교육의 과행을 막고 지역대학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교육부가 1999년, 2006년, 2013년에 대학 편입학에 대한 규제를 점차 강화해왔다. 그러나 4년제 대학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2014학년도에만 전국적으로 31,996명의 학생이 편입하였으며[2], 대학 편입학의 경쟁률이 실질적으로 높은 것을 감안하면 이보다 훨씬 많은 학생들이 대학 편입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

편입은 편입생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뒤늦게나마 자신의 적성과 진로에 더 맞는 전공 및 대학을 선택한다는 점, 즉 학생의 선택권을 넓힌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3]. 그러나 교육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전국적으로 편입을 원하는 학생이 지나치게 많다는 것은 최초에 진학한 대학 이전 단계에서 진로지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사회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최초에 진학한 대학 및 학과에 만족하지 못하여 편입을 준비하는 학생이 많아질수록 시간적·금전적 의미에서 사회적 비용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관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재학생 중 편입을 준비하는 학생의 비율이 늘어날수록 학생의 이탈로 인한 재정적 손실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이다.

편입준비생들이 소속되어 있는 대학의 입장에서는 이들이 편입을 준비하게 된 이유를 알아야 학생들의 이탈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며, 편입생들이 속한 대학 입장에서는 편입생들이 일반 학생들에 비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편입 이전의 대학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였는지를 알아야 이들의 적응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측면에서 편입준비생들에 대한 연구는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입생에 관한 학문적 관심은 일

반 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다. 편입생에 대한 연구 중에서도 편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을 뿐 이들이 편입 이전의 대학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는지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편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는 편입 준비생들의 소속대학이 이들의 이탈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는 큰 도움이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요인을 밝히는 일 만으로는 편입 이후에 이들이 새로운 학교에 잘 적응하도록 돕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는 불충분하다.

편입생들은 일반 학생들에 비해 학업성취도가 낮으며[4], 새로운 대학에서 인간관계를 맺을 기회가 부족하고[4-6], 소외되고 고립된 느낌을 가지며[1][5] 등 대학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되고 있다. 편입생이 대학에 잘 적응하도록 돕는 적응 및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하는 등의 정책을 개발·시행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편입 이전에 겪었던 경험이 일반 학생들에 비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이들의 편입 이전 대학에서 겪었던 경험이 일반 학생에 비해 어떻게 다른가를 보기 위해서는 종단적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편입생에 관한 연구에서 연구방법은 주로 일회적인 설문조사에 의해 이루어지거나 소수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담이 주를 이루었다[1][4][7-9]. 종단자료를 이용한 편입생 연구는 주로 해외 연구[10]라 우리나라에 적용이 어렵거나 편입생들의 노동시장에서의 성과[11]나 대학선택요인[12] 등을 다루고 있어 대학 편입생의 편입이전 대학생활의 특징에 관한 종단 연구가 추가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대학 편입생의 편입이전 대학생활의 특징에 관한 종단연구의 필요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는 학교 간 연계 데이터 확보가 어렵고, 대조군을 설정하기가 어렵다는 점 두 가지이다. 첫째, 이와 같은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편입학 이전과 이후의 두 기관의 연계 데이터가 필요하다. 한 개인이나 기관이 두 기관 연계 데이터를 수집하기 곤란한 점이 있어 그 동안 이 주제에 관한 종단연구가 수행되지 못하였다. 둘째, 편입생들의 편입이전 대학생활이 일

반학생에 비해 어떠한 특징을 가지는 지를 밝히기 위해서는 대조군 설정이 필요하며, 대조군을 설정할 때에는 편입학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요인들 중 많은 변수들은 고등학교 이전의 경험 및 그 특징이 포함되는데 종단데이터가 아닌 경우에는 이와 같은 요인을 고려하기 어려워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육중단 조사 데이터 2005 코호트의 9년차 데이터부터는 대학 2학년을 마치고 편입한 학생들이 나타남으로 이와 같은 종단연구 수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본 연구는 편입생들의 편입 이전의 대학생활이 일반학생과 어떻게 다른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1) 한국교육중단 조사 데이터 2005 코호트의 7·8·9차년도에 다양한 변수들 중 대학생활에 관련된 8개 변수를 도출하고, 2) 편입생들이 편입 이전 대학에서의 생활이 일반학생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대학 편입생의 개념 및 현황

편입생은 ‘기존에 재학하던 대학에서 다른 대학으로 학적을 이동하면서 1학년이 아닌 다른 학년으로 입학한 학생’을 말한다. 고등교육법 제 23조의 2항에 따르면 학교는 학점을 학칙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입생(編入生)으로 선발할 수 있으며, 이때 학점이란 국내의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득한 학점, 또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취득한 학점을 의미한다. 또한 제 51조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대학, 산업대학 또는 원격대학에 편입학할 수 있다.

편입의 유형으로는 일반편입과 학사편입이 있다. 일반편입은 4년제 대학에서 2년 이상 수학하거나, 2·3년제 대학을 졸업한 뒤 4년제 대학의 3학년으로 편입하는 것을 말한다. 학사편입은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제

대학의 3학년으로 편입하는 것을 뜻한다.

최지혜의 연구[13]에 따르면 2015년 일반편입 모집인원은 약 2만 명이고, 학사편입은 약 6천 명이었다. 일반편입과 학사편입은 각각 6.5:1 5.3:1의 경쟁률을 보였는데, 이는 적어도 16만 6천여 명의 학생들이 편입을 준비하고 시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대학 편입 제도의 변화

해방 이후 1981년까지 군입대 및 미등록 등에 의한 결원 보충에 의해 유지되어 온 대학 편입학제도는 1982년 졸업정원제 실시로 사실상 중단되었다. 이후 1989년 입학정원제가 실시되면서 일반편입학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 일반편입학은 휴학생수와 재학생을 포함한 재적생 정원대비 여석을 산정하였으며 일반 편입학의 모집학년은 2·3학년이었다. 또한 학사편입학은 3학년 입학정원의 2%까지 모집할 수 있었다.

이후 1996년도에 학사편입학 모집비율을 3학년 입학정원의 2%에서 5%로 상향조정함에 따라 편입학제도가 확대되었다. 그러나 1999년도 2학기 이후 편입요건이 강화되면서 편입제도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다. 1999년도 2학기 이후부터 2학년 편입을 폐지하고 3학년 편입만 허용하였으며, 2006년부터는 후기(2학기) 일반편입을 폐지하여 연 2회 실시되던 일반편입을 연 1회로 축소하였다. 또한 학사 편입학의 모집비율 규정도 당해 학생 입학정원의 5% 이내에서 2% 이내로, 당해 학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 이내에서 4% 이내로 축소되었다. 해방 이후 현재까지의 대학 편입제도의 변화는 [표 1]과 같다.

표 1. 대학 편입 제도의 변화

시기	주요 변화 내용
해방-1981년	군입대 및 미등록 등에 의한 결원 보충
1982년 (중단기)	1982년 졸업정원제 실시로 인한 일반편입학 중단
1989-1995년 (도입기)	1989년 입학정원제로 환원 후 일반편입학 시행 일반편입학 여석 산정 기준: 휴학생 수와 재학생을 포함한 재적생 정원 대비 여석 산정 일반편입학 모집학년: 2·3학년 학사편입학 모집비율: 3학년 입학정원의 2%
1996-1998년 (확대기)	편입학 여석 산정 기준 변화 일반편입학 여석 산정 기준 변경: 재학생+휴학생→재학생 일반편입학 모집학년: 2·3학년 학사편입학 모집비율: 3학년 입학정원의 2%에서 5%로 확대

시기	주요 변화 내용
1999-2005년 (축소기)	편입학 자격 요건 변화 1999년 2학기부터 2학년 편입 폐지, 3학년만 허용 편입학 여석 산정 기준 변화 일반편입학 여석 산정 기준 변경: 재학생-재학생+휴학생 학사편입학 모집비율: 3학년 입학정원의 5% 대학 정원 외 교육과정 연계 편입학 전형 실시
2006-2012 (축소강화기)	일반편입학 선발 횟수 조정 2006년부터 후기(2학기) 일반편입 폐지: 2회→1회(정원 외 편입학 전형은 연 2회 유지) 편입학 여석 산정 기준 변화 일반편입학: 교수확보율에 따른 편입학 모집인원 산정
2013-현재	편입학 여석 산정 기준 변화 일반편입학: 4대 요건 확보율에 따른 편입학 모집인원 상정 정원 외 학사 편입학 모집비율 축소 : 당해 학생 입학정원의 5% 이내-2% 이내 : 당해 학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 이내-4% 이내 정원의 입학 선발 횟수 조정 2013년 후기(2학기) 편입 폐지: 2회→1회(재외국민 및 외국인 후기편입은 유지)

자료: [13] 재인용.

3. 대학 편입생 관련 선행연구

기존의 편입관련 연구는 크게 편입제도 및 정책에 관한 연구와 편입생들에 관한 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편입제도 및 정책에 관한 연구에서는 편입의 실태분석을 통한 제도의 보완사항을 제시하거나[14], 편입을 통한 대학생의 이동구조와 이동 원인을 밝힘으로써 편입제도 및 정책의 쟁점 등을 분석[5]하였다. 일반편입의 경우 사회적 평판이 낮은 대학에서 높은 대학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으며, 학사편입의 경우 사회적 평판에 대한 고려와 함께 전공과 졸업 후 진로에 대한 고려도 높은 경향을 보였다.

편입생들에 관한 연구는 편입 이전에 관한 연구와 편입 이후에 관한 연구로 나뉜다. 편입 이전에 관한 연구는 어떠한 학생들이 주로 편입하는가에 관련된 편입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12][15-17], 중도탈락 의도에 관한 연구[12][18] 등이 있다.

편입 이후에 관한 연구는 편입생들의 학업에 관한 연구[4]와 새로운 대학에서의 적응[1][4][5][19]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 편입생들을 일반학생들에 비해 전공에 충실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으나 이와 같은 태도가 학업성취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이전의 대학과 교

육과정의 차이나 선수과목 차이, 정보부족 등 다양한 이유로 편입생의 학업 성취는 일반학생들에 비해 낮은 경향[4-6]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일반편입생과 일반학생들 간의 학업성취 차이는 학기가 지날수록 더욱 커지는 경향을 나타냈다[6].

편입생들의 편입 이후의 적응에 관한 연구에서는 대학이나 전공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는 있으나 편입생들은 일반학생들에 비해 나이가 많았으며, 다른 경로로 입학하였다 점에서 이질감을 느끼고 있었다. 이와 같은 이질감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은 편입생들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거나, 기존의 재학생들과 적극적인 관계를 형성하려는 노력으로 나타났다[1][5][19]. 또한 학업성취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편입생의 교육만족도는 대체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4].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존의 편입관련 연구는 크게 편입제도 및 정책에 관한 연구와 편입생들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편입생들에 관한 연구는 편입 후와 편입 전에 관한 연구로 나눌 수 있는데 편입 전의 생활에 관한 연구는 편입 의도나 편입을 결정하게 한 요인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어, 편입생들의 편입 후 대학생활 적응에 결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편입생들의 편입 전 대학생활이 어떠한지에 관한 연구가 부족했음을 알 수 있다.

III. 연구 방법

1. 관찰집단 및 대조집단의 표집

본 연구는 편입학을 한 대학생들의 편입 이전 대학교육 경험을 관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한국교육중단조사 2005 코호트 중에서 7차년도 조사 시점에 대학생이었으며, 우리나라의 편입학 제도는 대학에서 최소 2년을 수학한 이후에 편입학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가 사용한 한국교육중단조사 2005 9차년도에 편입학하기 위해서는 7차년도에 이미 대학생이어야 한다.

9 차년도 조사에서 현재 편입을 통해 어느 대학에 재

1. 4대요건 확보율= [교원확보율(겸임·초빙 포함)+교지확보율+교사확보율+수익용기본재산확보율]×0.25

* 4대 요건 확보율은 재학생 대비로 도출

학 중인 학생(‘입학형태’ 질문에 대해 ‘편입학(일반편입)’ 또는 ‘편입학(학사편입)’이라 응답한 학생)을 관찰 집단으로 선택하였다. 본 연구가 사용한 데이터로부터 총 61명의 학생들이 관찰집단으로 분류되었다.

관찰집단의 특성과 비교할 대조집단은 두 가지 방식을 적용하여 구성하였다. 첫 번째 대조집단은 7차년도 조사 시점에 대학생이었으며, 9차년도 조사에서 현재 대학에 수능 시험을 통해 입학했다고 응답한 학생들이다. 또한 7, 8, 9차년도 중 편입학을 위해 휴학한 학생들은 제외하였다. 7차년도 데이터에서 36번 질문에서 ‘예’라고 대답하고 36-1번 질문에서 ‘편입학준비’를 선택한 학생, 8차년도 데이터에서 44번 질문에서 ‘예’라고 대답하고 44-1번 질문에서 ‘편입학준비’를 선택한 학생, 9차년도 데이터에서 34번 질문에서 ‘예’라고 대답하고 34-1번 질문에서 ‘편입학준비’를 선택한 학생들을 의미한다.

이들의 경우 대조집단보다는 관찰집단과 공유하는 특성이 더 많을 것이라 추정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가 사용한 데이터로부터 총 1,644명의 학생들이 이러한 조건을 충족한 대조집단을 구성하였다.

앞서 구성한 대조집단의 경우 관찰집단과의 비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특성들이 통제되지 않은 상태라 할 수 있다. 선행 문헌들을 통해 볼 때, 원소속대학에서의 교육경험 이외에도 수능 성적과 같은 대학 이전의 요인이나 성별과 같은 개인 특성, 대학의 규모, 대학의 소재지 등과 같은 원소속대학의 특성이 편입학을 결심하는데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변수들은 본 논문이 분석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대학생활 특성 과도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이들 변수의 영향력을 통제하지 않으면 선택편의(selection bias)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2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특성들을 통제하기 위하여 관찰집단의 학생들과 7차년도에 ‘동일한 대학’에 재학 중인 ‘같은 성별’의 학생들로 또 하나의 대조집단을 구성하였다. 대학간 서열이 존재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 현황을 고려할 때, 동일 대학 재학생의 경우 어느 정도 비슷한 수준의 수능 성적을 갖고 있을 거라 추정되며, 대학의 규모와 소재지도 통제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성별’이라는 개인

특성도 추가적으로 통제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구성된 대조집단은 총 195명의 대학생들로 구성된다. 또한 동일 대학 학생을 대응시키는 과정에서 일부 관찰집단 학생들은 동일 대학의 대조집단을 찾을 수 없었다. 그 결과 이 대조집단과 비교 가능한 관찰집단은 이전의 61명에서 47명으로 축소되었다. 동일대학 재학생을 추출하는 과정은 통계 프로그램 R의 MatchIt 패키지의 ‘matchit’ 기능과 method 옵션에서 ‘exact’를 선택함으로써 수행되었다[21]. 이상의 과정을 통해 형성된 대조집단의 경우 관찰집단 한 명당 대응되는 관찰집단이 동일하지 않다(1:1 대응부터 최대 1:26까지 나타났다). 이 경우 특정 대학 재학생들의 경험이 과도하게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를 고려하여 다시 한 번 ‘matchit’ 기능과 ‘method=nearest’ 그리고 ‘ratio=1’을 사용하여 ‘동일한 대학’에 재학 중인 ‘같은 성별’의 학생들을 1:1로 표집하였다. 이 과정에서 대응 학생이 부족한 이유로 관찰 집단이 45명으로 축소하였으며, 이에 대응하는 45명의 두 번째 대조집단을 형성하였다.

표 2. 관찰집단과 대조집단

구분	특징	인원(명)
관찰집단	7차년도- 대학생 9차년도- 편입을 통해 재학	61
대조집단 1	7차년도- 대학생 9차년도- 일반입학 후 재학 7·8·9차년도-편입을 위한 휴학이 없는 학생	1,644
대조집단 2	대조집단 1중 관찰집단과 7차년도에 동일대학에 재학/ 같은 성별 학생 1:1표집	45

2. 변수의 선정 및 분석 방법

본 연구가 관심을 가진 편입학생들의 이전 학교에서의 대학생활경험은 다음과 같은 8개의 변수이다. 첫 번째 변수는 비정규 교과로서 대학에서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에 얼마나 많이 참여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KELS 조사는 리더십개발, 현장실습, 멘토링, 튜터링, 진로개발 또는 취업역량 개발, 진로상담, 글쓰기 향상, 어학 프로그램에 참여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들을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들 8가지 프로그램 중

참여한 경험이 있는 프로그램의 숫자를 ‘비정규교과프로그램 참여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생성하였다.

두 번째 변수는 성적이다. 각 학교마다 평점을 나타내는 방식이 4.0, 4.3, 또는 4.5로 다양하다. 본 연구는 어느 학생의 조사 시점의 직전 학기 평점을 그 학교의 평점 만점 기준으로 나눈 값을 생성하여 그 학생의 성적을 나타내는 지표로 간주하였다.

세 번째 변수는 수업활동참여도이다. KELS 자료는 수업활동참여도 영역에 토론참여, 질문, 팀 프로젝트 참여, 발표, 수업 준비 정도를 1-5점 척도로 묻는 5개 문항을 포함시키고 있다. 본 연구는 이들 문항에 대한 학생들의 응답을 평균하여 그 학생의 수업활동참여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간주하였다.

네 번째 변수는 ‘수업 외 교수와의 교류’이다. 이 개념은 가벼운 인사, 간단한 대화, 사적인 일에 대한 상담 등 총 7가지 교류 방식에 대한 문항들로 질문되고 있다. 응답자들은 ‘전혀 안함’, ‘한 학기에 1-2회’부터 ‘거의 매일’까지 총 6단계의 빈도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는 7가지 질문에 대한 응답의 평균을 통해 ‘수업 외 교수와의 교류’를 나타내는 변수를 생성하였다.

다섯 번째 변수는 ‘기타 교내 활동’으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학생회활동, 교내 축제 또는 문화행사, 대학 간 교류(체육, 예술)활동에 참여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는 4가지 유형의 교내 활동 중 참여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유형의 수를 기타 교내 활동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하였다.

여섯 번째 변수는 ‘친구 및 선후배와의 교류’정도이다. KELS는 이와 관련하여 개인적인 일에 대한 상담, 수업 관련 학습활동, 오락 활동 등을 포함하여 총 9개의 문항에 답하도록 되어 있다. 응답자는 ‘전혀 안함’부터 ‘거의 매일’까지 총 6단계의 빈도 중 하나를 선택하였다. 본 연구는 9가지 질문에 대한 응답을 평균하여 ‘친구 및 선후배와의 교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하였다.

일곱 번째 변수는 ‘대학생활만족도’로서 KELS 에는 전반적인 대학생활을 묻는 문항부터 선후배관계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문항까지 총 9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는 이들 9개 문항에 대한 응답을 평균한 값을 사용하여 대학생활만족도를 나타내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변수는 ‘소속감’이다. KELS 는 소속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학과(학부 또는 계열)의 구성원이라는 생각이 든다’, ‘대학의 구성원이라는 생각이 든다’와 같은 총 1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는 ‘학과(학부 또는 계열)에서 소외되고 있다’, ‘동료 학생들과 어울리기 싫다’,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 ‘휴학했다가 후에 공부를 마칠까하는 생각을 한다’와 같이 부정적인 질문들도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는 부정적인 질문들을 역으로 코딩한 후 전체 16개 문항에 대한 응답을 평균하여 그 값으로 학교생활만족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가 분석할 자료를 앞서 설명한 변수별로 요약하면 [표 3]과 같다.

표 3. 주요변인 설명

변수명	변수명	
	7차/8차	설명
비정규 교과 프로그램 참여도	Y7U13_5~12/ Y8U15_n5~12	리더십개발, 현장실습, 멘토링, 튜터링, 진로개발 또는 취업역량 개발, 진로상담, 글쓰기 향상, 어학프로그램
성적	Y7U16_B Y7U16_A_평점/ Y8U25_B_2 Y8U25_A	조사 직전 직전학기 평점/ 평점 만점
수업활동 참여도	Y7U14_1~5/ Y8U16_N1~5	토론 참여, 질문, 팀프로젝트 참여, 발표 수업 준비
수업 외 교수와의 교류	Y7U25_1~7/ Y8U34_N1~7	가벼운 인사, 간단한 대화 수업내용에 대한 대화 또는 질의응답, 수업내용 이외의 주제에 대한 대화, 개인적인 일에 대한 상담(학업, 진로 등), 성적에 대한 문의, 행사준비 등 학과(학부 또는 계열)의 일
기타 교내 활동	Y7U13_13~16/ Y8U15_N13~16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학생회 활동, 교내 축제 또는 문화행사, 대학간 교류(체육, 학술) 활동
친구 선후배와의 교류	Y7U26_1~9/ Y8U35_N1~9	개인적인 일에 대한 상담(학업, 진로 등), 수업 관련 학습활동, 수업이외 학습활동, 학교생활에 대한 조언을 나눔, 학과(학교) 행사 또는 모임 참석, 동아리 또는 봉사활동, 야외활동 또는 운동, 오락활동, 기타
대학생활 만족도	Y7U20_1~9/ Y8U29_N1~9	전반적인 대학생활, 강의의 전반적인 질적수준, 교수 및 강사진, 강좌 또는 교육과정 구성, 수업방식, 전반적인 교육환경, 교수와의 교류, 교수관계, 선후배관계
소속감	Y7U21_1~16/ Y8U30_N1~16	학과(학부 또는 계열) 구성원 인식, 대학 구성원 인식, 학과(학부 또는 계열) 소속감, 대학 소속감

본 연구는 관찰집단이 대조집단과 비교하여 어떠한 대학 적응 활동을 수행하는지를 비교하기 위하여 변수의 특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의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22]. 계량화된 변수 간의 평균 차이 분석에는 t 검정이 사용되었으며, 명목변수의 분포 상의 차이 분석을 위해서는 카이자승 검정을 사용하였다.

IV. 연구 결과

본 연구가 관심을 가진 편입학생들의 이전 학교에서의 대학생활경험을 나타내는 8개의 변수인 비정규교과 프로그램 참여도, 성적, 수업활동 참여도, 수업 외 교수와의 교류, 기타 교내 활동, 친구 선후배와의 교류, 대학생활 만족도, 소속감에 대한 7차년도와 8차년도의 기술 통계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 주요변수 기술통계

변수명	N	M	SD	N	M	SD
편입학(편입학=1, 원대학=0)	1,705	0.036	0.186	90	0.500	0.503
7차년도						
비정규교과프로그램 참여도	1,705	1.989	1.767	90	2.211	2.123
성적	1,686	0.746	0.132	88	0.768	0.129
수업활동 참여도	1,705	3.286	0.661	90	3.327	0.633
수업 외 교수와의 교류	1,705	2.821	1.002	90	2.979	1.003
기타 교내 활동 참여도 (학생회, 축제 등)	1,705	2.437	0.958	90	2.422	0.912
친구 선후배와의 교류	1,705	3.380	1.143	90	3.159	1.241
대학생활 만족도	1,705	3.314	0.577	90	3.231	0.633
소속감	1,705	3.547	0.591	90	3.483	0.642
8차년도						
비정규교과프로그램 참여도	1,705	1.788	1.916	90	1.844	1.878
성적	1,137	0.772	0.135	72	0.785	0.155
수업활동 참여도	1,422	3.299	0.662	79	3.362	0.655
수업 외 교수와의 교류	1,421	2.995	0.988	79	3.110	0.961
기타 교내 활동 참여도 (학생회, 축제 등)	1,705	1.806	1.318	90	1.778	1.216
친구 선후배와의 교류	1,422	3.158	1.045	79	2.990	1.057
대학생활 만족도	1,422	3.373	0.592	79	3.205	0.636
소속감	1,422	3.541	0.583	79	3.063	0.414

본 연구에서는 연차 및 대조집단의 종류에 따라서 총 4가지의 비교가 이루어졌다. 첫째는 편입학생과 대조집단 1의 7차년도 비교이고, 둘째는 편입학생과 대조집단 2의 7차년도 비교이다. 셋째는 편입학생과 대조집단 1의 8차년도 비교이고, 넷째는 편입학생과 대조집단 2의 8차년도 비교이다. 편입학생과 대조집단 1·2의 평균을 아래의 [그림 1]과 같이 4가지 측면에서 비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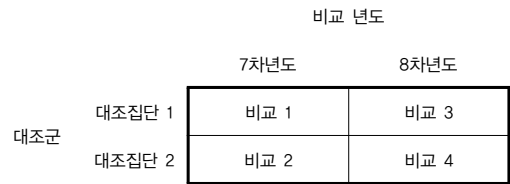


그림 1. 관찰집단과 이루어진 비교의 종류

아래 [그림 2]는 편입한 학생과 일반학생의 편입 이전 대학에서의 특성을 나타내는 8개 변수에 대한 평균들을 연결한 방사형 도표이다. 그림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회색으로 표시된 관찰집단의 경우 그림의 오른쪽 영역(1-4지표)에서 대조집단보다 평균적으로 높은 경향을 나타내고, 왼쪽 영역(5-8지표)에서는 평균적으로 낮은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다만 7차년도 매칭집단 비교의 1번 및 5번 지표의 경우는 이런 패턴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림 2]에서 시각적으로 발견된 두 집단간 평균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t 검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표 5]와 같이 편입학 학생의 편입 이전 대학생활의 특성을 나타내는 8개 변수를 2개의 군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점선 위쪽 부분에 해당하는 변수는 학교의 공식적인 활동과 관련된 변수로 수업 외 교육프로그램 참여도, 성적, 수업활동, 교수와의 교류 등이 이에 해당하고, 점선 아래쪽 부분에 해당하는 변수는 학교의 생활 또는 정서적인 측면과 관련성이 높은 변수인 활동 참여도(학생회, 축제 등), 선후배와의 교류, 학교생활 만족도, 소속감 등이 이에 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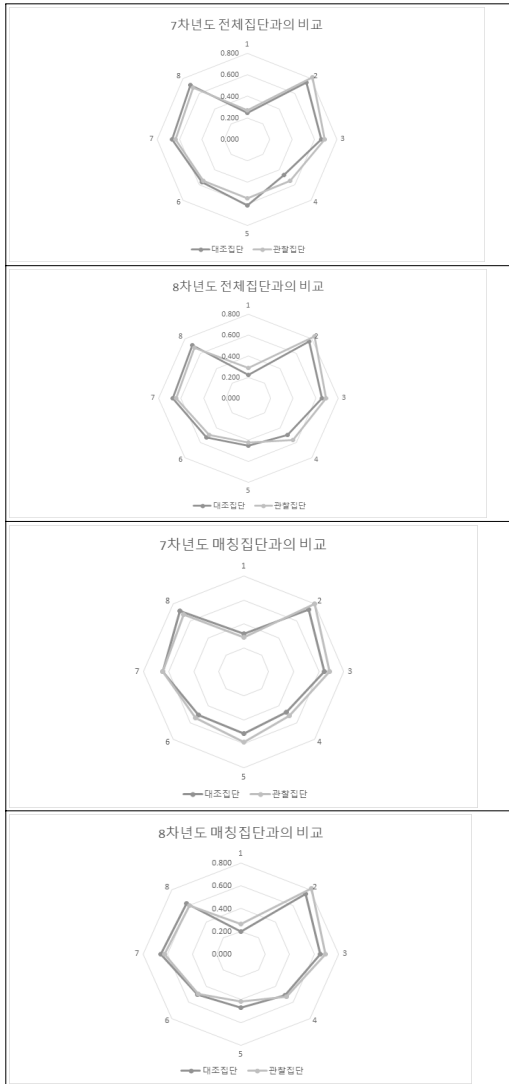


그림 2. 편입학 학생의 특성 비교 결과

표 5. 편입학 학생의 특성 비교 결과 요약표

		7년차전체 (비교 1)		7년차매칭 (비교 2)	
		대조 집단1	편입생	대조 집단2	편입생
학교의 공식적인 활동	수업외 교육프로그램 참여도	1,982	2,164	2,533	2,311
	성적	0.744	0.818	*** 0.732	0.804
	수업활동	3,281	3,433	3,218	3,436
	교수와의 교류	2,804	3,258	** 2,873	3,086

		7년차전체 (비교 1)		7년차매칭 (비교 2)	
		대조 집단1	편입생	대조 집단2	편입생
학교의 생활 정서적 측면	활동 참여도 (학생회, 축제 등)	2,446	2,197	* 2,067	2,356
	선배와의 교류	3,383	3,293	3,047	3,272
	학교생활만족도	3,320	3,162	3,232	3,230
	소속감	3,553	3,383	3,588	3,378
		8년차전체 (비교 3)		8년차매칭 (비교 4)	
		대조 집단1	편입생	대조 집단2	편입생
학교의 공식적인 활동	수업외 교육프로그램 참여도	1,768	2,311	* 1,600	2,089
	성적	0.769	0.833	*** 0.745	0.818
	수업활동	3,293	3,455	3,251	3,470
	교수와의 교류	2,979	3,387	** 3,066	3,154
학교의 생활 정서적 측면	활동 참여도 (학생회, 축제 등)	1,810	1,689	1,889	1,667
	선배와의 교류	3,166	2,962	3,017	2,964
	학교생활만족도	3,379	3,204	3,271	3,142
	소속감	3,547	3,382	3,133	2,995

* p < 0.1, **p < 0.05, *** p < 0.01
 명암설명: 진한회색(4개 비교 모두 일관된 결과)
 연한회색(3개 비교에서 일관된 결과)

분석 결과는 1)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변수와 2) 4개의 비교에서 일관된 결과를 보이는 변수, 두 가지 측면에서 기술하였다. 1)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변수는 통계적 유의도에 따라 *로 표시하였고(* p < 0.1, **p < 0.05, *** p < 0.01), 2) 4개의 비교 결과의 일관성은 색의 명암(진한 회색: 4개 비교 모두 일관된 결과, 연한 회색: 3개 비교에서 일관된 결과)으로 표시하였다.

검증 결과 학교의 공식적인 활동과 관련된 변수에서 편입학생은 7년차에서 대조집단 1과 2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성적이 높았으며, 대조집단 1에 비해 교수와의 교류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8년차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또한 7년차 8년차 모두 학생회, 축제 등을 포함하는 활동 참여도에서 편입학생이 일반 학생에 비해 낮은 참여를 보였으며, 7년차에서는 이와 같은 평균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표 5]에서 진한 회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4가지의 비교에서 일관되게 편입학생의 평균값이 크게 나타나는 변수를 의미한다. 그 결과에

따르면 편입학생들은 이전의 대학에서 대조집단에 비해 성적이 우수하고 수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교수와의 교류도 빈번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성적 및 교수와의 교류의 경우 4가지 비교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수업 외 교육프로그램 참여도의 경우 7년차의 매칭을 통한 대조집단(대조집단2)과의 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 비교에서 일관되게 편입학생이 높게 나타났으며 위의 표에서 연한 회색으로 표시하였다. 전반적으로 공식적인 수업과 관련성이 높은 영역에서는 편입학생들이 보다 열심을 내었다고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학교의 생활이나 정서적 측면을 나타내는 변수와 관련된 결과에서는 7차년도 전체 대조집단 1에 비해서 편입학생들의 학생회, 축제 등을 포함하는 활동 참여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4개 비교에서 일관되게 편입학생들은 일반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학교생활만족도가 낮고, 학교에 대한 소속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위의 표에서 진한 회색으로 표시하였다. 또한 학생회, 축제와 같은 활동 참여도나 선후배와의 교류의 경우, 7년차 매칭을 통한 대조집단과의 비교를 제외하면, 나머지 세 가지 비교에서 모두 낮게 나타났으며 연한 회색으로 표시하였다. 즉, 학생들 간의 교류나 대학에 대한 정서적인 측면과 관련성이 높은 영역에서는 편입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적극적이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분석 결과 매칭집단을 사용하여 비교할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들의 수가 감소하였는데, 이는 표집의 수가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매칭집단을 사용할 경우 7차년도 자료 분석의 '수업외 교육프로그램 참여도'나 '활동 참여도'의 경우와 같이 다른 분석과는 크기의 방향이 반대로 나타나기도 하며 두 집단간의 평균 차이도 최소 0.002(7년차 성적)부터 최대 0.32(8년차 교수와의 교류)까지 차이가 났다. 이는 교란변수(confounding variable)의 고려 여부로 인한 차이라고 볼 수 있다. 분석의 신뢰성을 고려하여 매칭집단을 활용한 분석 결과만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진한 회색으로 표시한 경향성에 주목할 필요

가 있다.

V.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한국중단연구 2005 데이터를 사용하여 편입생들의 편입 이전의 대학생활이 일반학생과 어떻게 다른지를 탐색적으로 분석하였다. 관찰집단은 7차년도 설문 당시 대학생이었고, 9차년도 설문당시에 편입을 통해 재학하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이다. 대조집단은 편입하지 않는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대조집단 1과 관찰집단과 7차년도에 동일한 대학에 재학 중이고 같은 성별인 학생을 1:1 표집한 대조집단 2로 나누어 비교하였다. 다만, 대조집단 중 7·8·9차년도에 편입을 위한 휴학을 한 경험이 있는 학생은 편입생들의 이전 대학생활과 비슷할 가능성이 높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편입생들의 편입 이전 대학생활은 '비정규교과프로그램 참여도', '성적', '수업활동 참여도', '수업 외 교수와의 교류', '기타 교내 활동', '친구 선후배와의 교류', '대학생활 만족도', '소속감' 등 8개 변수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편입한 학생들의 편입 이전의 대학생활은 편입하지 않은 학생들 전체(대조집단 1)의 7차년도 8차년도 대학생활과 비교하고 매칭을 통한 비교집단(대조집단 2)의 7차년도 8차년도 대학생활과 비교하여 각 변수별로 총 4개의 비교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편입생을 편입하지 않은 학생들 전체(대조집단 1)와 비교했을 때보다, 관찰집단의 학생들과 7차년도에 '동일한 대학'에 재학 중인 '같은 성별'의 학생들(대조집단 2)과 비교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의 수가 감소하였으며 대조집단 2(매칭집단)와 비교할 경우 특성 변수의 경우 다른 비교에 비해 변수의 크기 차이가 반대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분석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매칭집단을 활용한 분석 결과만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에 따르면 편입학생들은 이전의 대학에서 일반학생에 비해 성적이 우수하고, 수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수업 외의 항목에서 교수와도 활발히 교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적 및 수업 외

교수와의 교류에서는 4가지 비교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비정규교과프로그램 참여도의 경우 편입학생이 7년차의 매칭을 통한 대조집단과의 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 비교에서 일관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편입한 학생은 이전 대학에서 전반적으로 공식적인 수업과 관련성이 높은 영역에서는 일반학생들이 보다 열심히 활동하고 좋은 성과를 내었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편입학생들은 이전 대학에서 상대적으로 학교생활 만족도가 낮고, 학교에 대한 소속감이 낮았다. 또한 학생회, 축제와 같은 기타 교내 활동 참여도나 친구 및 선배와의 교류의 경우, 7년차 매칭을 통한 대조집단과의 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세 비교에서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편입생들은 이전 학교에서 학생들 간의 교류나 대학 생활에 대한 정서적인 측면과 관련성이 높은 영역에서는 일반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다음과 같이 해석될 수 있다. 편입 준비생들이 편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학점 관리가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편입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일반 학생들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학점을 관리하고, 학점 관리의 일환으로 교수와의 교류도 활발히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편입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편입 시험에 대비하는 등 편입을 준비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는 시간이 별도로 필요하다. 따라서 편입 준비생들은 이와 같은 시간 벌기 위해, 편입의 성공에 필수적이지 않은 학생들 간의 교류나 대학생활으로써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대다수의 편입준비생들이 일반학생들이 대학 1·2학년에 경험하는 다양한 활동들을 경험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뿐만 아니라 편입 준비생들의 이와 같은 경험의 부재는 편입에 성공하여 자신이 희망하는 학교로 입학한 후의 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된다. 선행연구들은 편입생들이 일반 학생들에 비해 새로운 대학에서 소외되고 고립된 느낌을 가진다고 보고하고 있다[1][5]. 이는 3학년으로 편입하는 경우,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을 기회가 부족하기 때

문일 수도 있지만[4-6], 이들이 이전 경험의 부재로 인해 대학에서 동료들과 교류하는데 익숙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다. 편입학생들이 상대적으로 학업성취도가 낮은 것도[4] 새로운 집단에서의 소외감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편입생들이 편입 이후의 대학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들의 이전 경험의 부재로 인한 것이라면, 연간 30만 명이 넘는 편입생들의 학교 적응을 효율적으로 돕기 위해, 정책담당자나 교육행정가들 혹은 대학 차원에서 편입학생들이 새로운 환경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개발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대학 편입과 관련한 기존의 연구들이 대학 편입 제도, 대학편입생들의 편입 결정 요인, 편입 이후의 학문적 생활적 적응에 주로 관심을 가졌던 것에 반해 편입생들의 편입 이전 대학에서의 경험을 일반 학생들과 비교함으로써 이들이 일반학생들에 비해 어떠한 특성을 보이는 지를 탐색적으로 연구하였다. 이를 통해 편입생들이 편입 이후에 보이는 부적응 문제를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올해, 즉 한국중단조사데이터 2005 코호트의 9년차 데이터부터 대학 2학년을 마치고 편입한 학생들이 나타남으로써 편입 이전과 편입 이후의 학교 간 연계 데이터를 확보하였으며, 대조군을 2개 차원으로 설정하여 비교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9년차 데이터에서 편입학생이 처음 발생한 까닭에 관찰집단의 표본 수가 비교적 작고 그 결과 매칭을 실시한 대조집단 2의 표본 수도 작아 통계적으로 다양한 분석을 실시하기 힘들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또한 표본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결과를 얻는 데에도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와 함께 4개 비교에서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결과를 함께 제시하였다. 향후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하여 본 연구에서 탐색된 다양한 가능성에 대한 인과 관계를 명확히 분석하는 연구들이 활발히 수행되기를 기대한다.

* 본 연구는 『제10회 한국교육중단연구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보완하였음.

참 고 문 헌

[1] 이숙임, 이은경, “편입학사의 실태와 교육 모형 및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 *교과교육학 연구*, 제2권, 제2호, pp.147-168, 1998.

[2]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저자, 2015.

[3] 박희민, *전문대학 학생 중도탈락 요인분석: 오산대학을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4] 오영재, “대학 편입생들의 편입 후 대학생활에 관한 연구,” *교육행정학연구*, 제24권, 제2호, pp.451-474, 2006.

[5] 박병영, 김미숙, 김수연, *고교-대학 연계를 위한 대입전형 연구(V): 편입학 원인과 이동 구조 분석(RR2008-16-02)*, 한국교육개발원, 2008.

[6] 이준형, “편입생의 평점 평균 분석-대학의 편입학 정책에 대한 시사,”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14권, pp.41-65, 2004.

[7] 김재웅, “미국 대학생 중도탈락: 개인·사회구조·대학의 상대적 중요성,” *교육행정학연구*, 제10권, 제1호, pp.17-48, 1992.

[8] 오영재, “대학간 학생이동의 영향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교육행정학연구*, 제23권, 제1호, pp.327-356, 2005.

[9] W. N. Grubb, “The decline of community college transfer rate,” *Journal of Higher Education*, Vol.62, pp.194-222, 1991.

[10] V. Tinto, “Stages of student departure: Reflections on the longitudinal character of student leaving,” *Journal of Higher Education*, Vol.59, No.4, pp.438-455, 1988.

[11] 백병부, 유백산, “편입학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 4년제 대졸 청년층을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제21권, 제3호, pp.99-117, 2011.

[12] 김성식, “대학생들의 학업중단 및 학교이동에 대한 탐색적 분석: 대학선택요인과 대학생활 만족도의 영향,” *한국교육*, 제35권, 제1호, pp.227-249, 2008.

[13] 최지혜, *대학생의 편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14] 한유경, 윤수경, 권민경, “편입학 제도의 실태 분석 및 개선 방안 모색,” *한국교육문제연구*, 제31권, 제3호, pp.63-84, 2013.

[15] 권균, “대학에서의 중도탈락 원인과 그 억제방안,” *교육학연구*, 제29권, 제3호, pp.235-249, 1991.

[16] 김수연, “전문대학생의 자퇴 및 휴학(계획) 결정 요인,” *교육사회학연구*, 제8권, 제2호, pp.235-247, 1998.

[17] 김수연, “대학생의 학업지속과 중도탈락 요인 분석,” *한국교육*, 제33권, 제4호, pp.33-62, 2006.

[18] 강승호, “대학생의 학업성취와 중도탈락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분석,” *교육평가연구*, 제23권, 제1호, pp.29-53, 2010.

[19] 김영경, 조명옥, 양진향, “편입생의 정체성 변화 경험,” *질적연구*, 제6권, 제1호, pp.15-31, 2005.

[20] D. N. Gujarati and Sangeetha, *Basic econometrics*, McGraw-Hill, 2008.

[21] D. Ho, K. Imai, G. King, and E. Stuart, MatchIt: Nonparametric preprocessing for parametric casual inference (Version 2.4-21), Retrieved from <http://cran.r-project.org/web/packages/MatchIt/index.html>, 2013.

[22] 임인재, 김신영, 박현정, *교육·심리·사회 연구를 위한 통계방법*, 학연사, 2008.

저 자 소 개

서재영(Jae Young Seo)

정회원



- 2002년 8월 : 서울대학교 교육학과(문학사)
- 2005년 8월 : 서울대학교 교육행정(교육학석사)
- 2013년 12월 : The University of Iowa(철학박사)

▪ 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

<관심분야> : 고등교육, 지방교육행정, 조직

최 원 석(Won Seok Choi)

정회원



- 2002년 2월 : 서울대학교 교육학
과(문학사)
- 2007년 2월 : 서울대학교 교육학
과(교육학석사)
- 2015년 3월 : University of
Minnesota(철학박사)

▪ 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

<관심분야> : 초중등교육, 교육정책, 학교조직